

# 순천시 AI ... 철새 도래지 자연생태공원 관리 비상

## 시, 이달중 부분 개장 계획서 무기 연기

### 40일째 관광객 통제 ... 지역경제 직격탄

순천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중 부분 개장할 예정이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순천시는 AI 발생 장소로부터 20여km 떨어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

던 것을 무기한 연기하고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뒤 AI 예방 차원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폐쇄하고, 다각적인 AI대책을 추진해 왔다.

순천만을 드나드는 주요 도로인 순천만 나들목 등 2곳에 방역초소와 생태공원 출입구 7곳에 방역 매트 설치해 차량 소독을 철저히 실시했다.

또 생태공원 주요 12곳에 하루 25명의 통제요원을 배치해 사람들의 생태공원 출입구 7곳에 방역 매트를 설치해 차량 소독을 철저히 실시했다.

이와 같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관광객 출입 통제가 40여일째 이어지자 최근 생태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상인과 시민들이 나서 순천만 폐쇄조치 철폐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개장요구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철새와 집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순천만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부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I가 불과 20여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자 이 같은 부분 개장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시는 앞으로 AI가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폐쇄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남 동부권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생태공원 부분 개장을 추진했는데 AI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 기자 ejkim@



## 곡성 옥과농협, 조합원 보답대회 성료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28일 옥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보답대회 및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사업운영 결과 보고에 이어 2014년 조기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위한 인기 가수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옥과농협은 그동안 마을별 방문을 통해 보답대회를 개최해왔으나 오랜 일정이 소요되는 등으로 규모가 작아 올해는 보답대회와 한마당 잔치를 한꺼번에 열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앞으로도 독거노인 사업과 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농업인이 행복해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복지 농촌에 희망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 삼채 고소득 작물 기대 신안 임자서 재배 성공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자라는 백합과 작물인 삼채가 신안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임자면 삼채작목반이 재배에 성공했다.

대과나양과의 소득률을 비교해 보면 10a(300평)당 양파는 230만원, 대파는 178만원에 비해 삼채는 300여만원으로 130~168%가량 높은 편이다.

또 삼채는 사질토가 발달한 지역에서 수량이 풍부하고, 팔금, 암배, 자은 등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임자면 삼채 작목반 김대현 대표는 "지난 2012년 한국삼채생산자 협회와 16ha면적 체결후 시험재배에 나섰다"며 "삼채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우쿠렐레 배우니 재밌어요"

곡성지역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이 최근 곡성군 드림스타트의 '딩기딩기 우쿠렐레 음악교실'에서 우쿠렐레를 배우고 있다. 우쿠렐레(ukulele)는 기타와 닮은 꼴 4현 악기로 크기에 따라 바리톤·테너·콘서트·소프라노로 나뉜다.

곡성지역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이 최근 곡성군 드림스타트의 '딩기딩기 우쿠렐레 음악교실'에서 우쿠렐레를 배우고 있다. 우쿠렐레(ukulele)는 기타와 닮은 꼴 4현 악기로 크기에 따라 바리톤·테너·콘서트·소프라노로 나뉜다. <곡성군 제공>

## 전북

# 전주·군산 등 5개 시·군 연대 공동 생활권 만든다

### 교육·복지 등 사업 추진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이 연대, 인근 광역시와 경쟁할 수 있는 '중추도시 생활권'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추도시 생활권'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 5개 시·군 단체장은 최근 '중추도시 생활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발전계획은 크게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옛 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도시활력 회복 ▲지역 잠재력에

기반을 둔 미래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고 즐거움을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핵심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5개 시·군은 ▲교통서비스 연계 ▲환경시설 공동 설치·운영 ▲로컬푸드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거점학교 활성화 ▲전문가 공동 활용 ▲평생교육 연계 ▲문화행사 공동 개최 ▲도시병원과 연계한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권이 비슷한 5개 시·군이 상생·협력한다면 해당 시·군은 물론 전북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 부녀회원들이 지난 1일 마을입구에서 풍물을 하며 '단속굿춤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 여성들이 선보이는 '단속굿춤 당산제'

### 정읍 원오류마을서 마을안녕 기원 ... 수백년째 이어져

'단속굿'은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치마 바로 밑에 입던 속옷이다. 현재의 삼각·사각형태가 아니라 바지처럼 생겼고 가랑이 부분이 터져 있다.

정읍 한 마을 부녀자들이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마을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수백년째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 부녀회는 음력 2월 1일인 지난 1일 마을입구에 서있는 버드나무 앞에서 '단속굿춤 당산제'를 지냈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원들이 단속굿춤을 추고 제를 올린 뒤 달집을 태우며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원오류마을 당산제는 남자들이만

주관이 되는 여느 당산제와는 달리 여성들이 주축이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단속굿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바지통에 팔을 넣어 단속굿 자락을 흔들며 춤을 추는 '단속굿춤'으로 유명하다.

한편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펴낸 한국민속신앙사전에는 당산제 유래에 대해 "마을에 살던 양반집 처자와 상민 출신 총각이 서로 좋아했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혼인을 하지 못했다. 이를 비판하던 총각이 상사병에 걸려 죽자 처녀도 병을 얻어 뒤따라 죽었다. 그 뒤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거듭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총각의 원혼(일부는 처녀의 원혼

이라고도 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속옷춤을 추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1970년대에 중단됐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자 부녀회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85년부터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당산제(堂山祭)=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 등 당산신(당산 할아버지와 당산 할머니)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지역 공동체적 의례이다. 당산굿, 동제(洞祭), 당제(堂祭)라고도 한다. 제일(祭日)은 주로 음력 정월대보름이나 정초가 가장 많다.

## 단신

### 정읍시의회 내일부터 192회 임시회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 19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4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시회를 진행한다.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는 한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 13일까지 연찬회를 마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위탁업체 코엑스 선정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 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코엑스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동신 시장과 변보경 ㈜코엑스 사장은 지난 27일 군산시청에서 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리를 맡을 ㈜코엑스 군산사업단을 구성해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5월 준공할 예정인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는 전북 최초의 전시컨벤션 시설로, 각종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세미나를 열 수 있는 2000여 규모의 컨벤션홀과 10개의 회의실을 갖춘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농기센터, 70개 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7일 유등면 유천마을을 시작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들어갔다.

관내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수리는 사업비 2600여만원을 들여 연중 사용 횟수가 많은 경운기와 관리기, 방제기 등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수리할 계획이다.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순회수리 운영조례에 의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응급조치 요령과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군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고창군은 지난 28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군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성북구·관악·송파구, 부 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고령군 등 6개 지자체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됐고, 이강수 고창군수의 기념사와 심덕섭 전북도부지사, 박래환 고

창군의장, 오성택 재경군민회장의 축하 순으로 이어졌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의 과거 100년은 우리의 역사가 됐고, 다가올 미래 100년은 우리의 꿈이 활짝 피어날 때"라며 "모든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 순창메주 인기 '짱'

### 발효미생물·100% 순창콩 지난해 출시 후 16억 매출

건강 발효미생물과 순창산 100% 콩으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공장에서 제조한 순창 메주가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대표 김종필)는 기존 메주와는 차별화된 기능성 향상 순창 메주 제품을 지난해 출시한 후 흡소량에 판매해 올 2월 말까지 16억여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 제품은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에서 분리한 순창 토착발효 미생물과 장류사업소에서 분리한 우수 곰팡이를 활용해 만들었다.

순창메주(주)는 지난해 200t의 콩 계약재배를 추진했으며, 순창메주의 판매 호조로 추가로 60t의 콩을 더 구매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추장이라는 브랜드에 중점을 뒀다면 순창메주의 흡소량 판매를 계기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메주와 된장, 간장품목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